

Highlights

하이라이트

2012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 6. 28일(목)부터 6. 29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승용 부의장(국가교육과학기술지문화의원은)은 기초강연에서 「대학의 과제 - 총장의 책문(策問)과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부의장은 우리 대학의 현실과 미래 환경, 현재 진행형인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과제 등을 설명하고, 변화의 중심부에 있는 대학총장들의 대책을 묻고(策問) 리더십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에는 대학 자율화, 국제화, 재정 확충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고, 대학총장들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마지막 시간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대학 및 대학생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 -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 20일(수) 한국산업인력공단 3층 소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교협 함인석 회장과 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 양 기관의 관련 업무 보직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로 떠오른 대학생 취업률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제178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6월 28일(목)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회의실에서 제178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 및 감사 보선(안), 육군사관학교의 회원가입(안),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수업목적저작물 보상금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상기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 주관으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및 대학측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제시하면서, 재개정 추진을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반대측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 보상금을 대학측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법적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대학,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보고 콘퍼런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콘퍼런스」를 2012년 7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관의 평가업무에 대해 직접 소개하는 '입학사정관 공감토크', 입학사정관제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동아리인 'Dream 멘토단' 출범식, 입학사정관제 이후 현장 변화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설명, 각종 학회가 참여한 학술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발협력연대 출범 및 대교협 참여

해외 무상원조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첫 협력체제인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가 2012년 8월 13일(월)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철 부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권순기 경성대 총장, 김상용 부산교육대 총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황대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개발협력연대는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 노력에 동참하고자 정부가 앞장서 처음 만든 무상원조 분야의 민간협력조직이다.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 기업, 학계 인사들이 원조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협력 사업도 함께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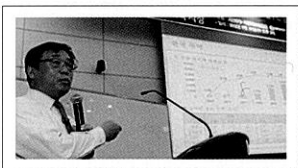
개발협력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다양한 주체를 하나의 장으로 결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의 노력을 모으는 것이 출범 목적"이라며 "다른 정부기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다자기구, 국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협력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선포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월 10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학교육, 유·초·중등교육, 산업, 시민사회, 교원, 학부모 분야 등 6개 분야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대표들은 선언문에서 "인재선발 생태계를 위해서 타 분야와의 소통을 통한 인재상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생태계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교육나눔 생태계를 위해서 타 분야와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미래 우리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펼쳐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생태계에는 인성 및 창의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공감 인재 육성', 인재선발(입시/취업) 생태계는 '자기주도적 인재 육성', 교육나눔 생태계는 '나눔 인재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각 분야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6회 CEO 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월 26일(수) 한남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오영호 KOTRA 사장은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요건」을 주제로 강연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시대인식과 언어 구사력 등 생각의 범위를 전세계에 맞춰 넓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 사장은 글로벌 인재의 요건으로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커뮤니케이션', '행운을 부르는 습관', '감사의 힘' 등을 들었다.

오 사장은 학생들을 위해 전공과 진로 선택을 위한 3가지 조언을 전했다. 가장 먼저 주위의 의견에 쫓기지 않는 '자기주도적 적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고객'이라는 요인을 또 다른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들었다. "선생님이 꿈이라면 학생이 고객"이라며 "20대에도 60대에도 학생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강조했다. "인류가 미래에 맞닥뜨릴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던졌다.

오 사장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이들은 실패를 주저하지 않는 실천가, 바로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바다 밑에는 수많은 먹이가 있지만, 바다표범 같은 천적도 많기 때문에 펭귄 우리는 쉽게 바다에 뛰어들이 않는다"며 "그러나 한 펭귄이 처음 나서 뛰면 나머지도 뛰어들게 되고 비로소 먹이를 찾게 된다. 이게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실천가의 가치이자 역할"이라며 꿈을 갖고 도전할 것을 주문하며 강연을 마쳤다.